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예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클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예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6년 11월 20일 (제873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창조적인 생각

왕이 세자빈을 간택함에 있어 고민을 많이 했다. 장차 이 나라를 다스릴 세자를 보필할 사람으로 어떤 자가 편찮을지 부심하다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후보 처자들을 불러 모으고는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에게 쌀 한 되씩을 줄 테니 한 달 동안 다른 것은 먹지 말고 이것으로만 연명하다가 다시 오너라.” 황당한 명령을 받은 처자들은 난색을 표하며 쌀 한 되씩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한 달 후 궁궐에 다시 모인 처자들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다. 심지어 들 것에 실려 들어오는 자도 있었다. 그런데 한 처자는 얼굴이 발그레하니 건강해보였다. 왕은 다른 처자들은 제쳐놓고 그 처자에게 다가가 물었다. “다른 처자들은 다 피골이 상접한데, 너는 어찌 그리 혈색이 좋은 것이냐?” 그러자 그 처자 왈, “한 달 동안 쌀 한 되로는 연명하기 어렵지요. 그런데 소녀는 그 쌀로 떡을 만들어 팔았더니 두 되가 되더이다. 다시 그것으로 쌀을 사 떡을 팔았더니 나중엔 쌀 한 달구지 값이 남았사옵나.” 왕은 그 처자를 세자빈으로 삼았다. 왜? 그의 창조적인 생각에 점수를 후히 준 것이다. 언제나 모든 일을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하지 말라. 생각의 틀을 깨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명의 친구들처럼 고착된 사고의 틀을 깨야 한다. 누가 감히 남의 집 지붕을 뚫을 생각을 했을까? 뽕나무에 올라간 사개오도 동일하다. 남들이 비웃을만한 꿈을 가져라. 남들이 공상이라고 비웃으면 어떤가? 그러나 남들이 손가락질하던 에디슨의 공상, 라이트 형제의 상상이 현실화되어 현대문명, 문화, 과학의 발전을 이루지 않았는가. 꿈이란 자고로 비현실적이다. 그러나 아는가? 꿈과 목표가 없는 자는 쫓기는 사냥감에 불과하다는 것을. 평범함 속에서 늘 쫓기는 사냥감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그러니 마음껏 상상하라. 한계는 스스로 긋는 것일 뿐! 무한한 상상력에서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법이다. 방법이 없다 말고 상상력을 발휘하라. 상상력은 당신의 부동의 자산이니까.

어려울수록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라

목사님이 삶의 고통을 호소하는 성도들에게 꼭 권면하시는 말씀이 있다. “어려울수록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라.”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자들이 다른 것은 우리에게 삶이 분명히 기준과 원칙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이 우리 삶의 꽃대 아닌가. 예배를 통하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음에도, 몰라서 못한다기보다는 알면서도 행치 않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대반이다.

이 기도해왔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받은 줄 믿어아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11: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큰 어려움이 닥치고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허둥댈 이유는 조금도 없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려는 뜻으로 감사하며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보다 그분이 명령하신 전도의 사명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 기도한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

중계로 주일예배를 인도하셨다. 또한 서울교회를 비롯한 전국 지교회가 추수감사절에 공히 총력전도하여 하나님께 영혼을 추수해드리는 기회로 삼자고 역설하셨다. 어려울수록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자는 목사님의 신앙철학을 행동에 옮기신 것이다. 국가적 위기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연하게 우리 맡은 바 전도의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요한이 장차 어찌될지 궁금해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남이 어떻게 될지



전국과 전세계 위성 및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된 인천예수중심교회 주일3부예배(2016년 11월 13일)

은 위정자들이, 사회 지도급 인사들이 법을 무시하고, 편법을 일삼으며, 헌정을 파괴하는 일들로 나라가 시끄럽고 백성은 고통을 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위기 앞에 허둥댈 이유가 없다. 헌법이 정한대로 의연하게 대처해나가면 되는 것이다. 우리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다. 삶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허둥대고 어찌할 바를 몰라 좌절, 낙담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그분의 음성에서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행동에 옮기는 기본과 원칙을 준행하면 된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나라의 안녕과 질서,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해 끊임없이

실 소망에 감사하며 우리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 말이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이니이까 하니 가로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6-8). 목사님은 작금의 국가적 위기 앞에 더욱 나라와 민족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기도할 것을 명하시고, 추수감사절을 맞아 총동원령을 선포하셨다. 이에 앞서 지난주 일 인천예수중심교회부터 실행에 들어가 KT위성차량을 통해 인천교회로부터 전국과 전세계 동시 위성 및 인터넷 생

그런 일들에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러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삽나이까 예수께서 가로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찌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요21:20-22). 이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 곧 영혼구원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자.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추계산상집회

11월 28일(월) ~ 12월 1일(목), 장성예수중심기도원
호텔예약 11월 22일(화) 오전 10:00, 홈페이지 예약(www.jcc.tv)
문의 02-533-9191

구독신청 02) 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잠4:23~27)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작품이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 “이봐, 암은 몸에 발 생하지? 그런데 말야, 그 암을 그냥 방치 하면 결국 암이 몸을 잡아먹고 만다네. 암 때문에 육체가 죽고 만다는 거야. 녹 은 쇠에 슬지? 그런데 녹을 그대로 두면 그 녹이 기계를 못 쓰게 만들고 만다는 거야. 녹 때문에 몇 백만 원, 혹은 수억 하는 기계를 버릴 수 있다는 거야. 내 말 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가?” 라고 물었습 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제 말 뜻을 이해 하지 못하고는 “무슨 말씀인지 잘...” 이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제 말 뜻을 아십니까? 내 안에 생각이란 것이 있는데, 그 생각에 의해 내 인생이 좌우된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 이 부정적이고, 악을 도모하고 있는데 그 것을 그대로 두면 결국 내 인생을 망친다 는 것입니다. 암이 나를 죽이고, 녹이 기 계를 망가트리듯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 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서 남이니라”(잠4:23)는 말씀을 잘 생각 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내 인생을 명작 으로 만드느냐, 졸작으로 만드느냐, 높이 평가 받느냐, 폐기처분 되느냐를 좌우하 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가 만드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시발점이 바로 생각에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만들어진 다는 겁니다. 생각을 자동차에 대입해보 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동차는 운전수가 조작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우측으 로 틀면 우측으로 가고, 좌측으로 틀면 좌측으로 갑니다. 직진하면 앞으로, 후진 하면 뒤로 갑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자동 차도 우리의 생각대로 앞으로도 가고, 뒤 로도 가고, 우측으로도, 좌측으로도 갑니 다. 성공으로도 가고, 실패로도 가고, 행 복으로도 가고, 불행으로도 간다는 겁니 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곳으로 데려다 주는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포기해야겠다고 하면 포기하는 거고, 할 수 없다 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 나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축복받을 것이 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내 생각대로 인생이 그리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 인생의 핸들이기 때문이고, 그 운전대는 당신의 마음이 쥐고 있기 때문 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우리 속에는 선과 악이라는 두 마리의 짐승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기 는지 압니까?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쪽 이 이깁니다. 내가 선하게 살겠다고, 선 을 추구하겠다고 생각하면, 즉 선에게 먹 이를 주면 선이 이기는 것이고, 남의 등

이나 치고 살아야겠다, 멋대로 살겠다 하 고 죄악에 먹이를 주면 악이 이겨 악인이 되고, 결국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이 중요합니다. 동생을 죽여 최초의 살인자가 된 가인에게 하나님 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선을 행 하면 어찌 낮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 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얹드리느니라 죄 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짜니라”(창4:7). 죄가 네게서 나오니 죄 를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누구 탓할 게 아니라 네 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 인에게 하신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도 “내 생각을 다스리라. 죄의 근 원이 거기서 나온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자 기의 생 각 을 다

스 리 는 것 이 결코 쉬 운 일은 아닙니 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구일까요? 바

로 자신입니다. 자신과 싸워 이기는 자가 최고의 승리자입니다. 대사도 바울조차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롬7:24) 고 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죽하면 성경도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 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잠25:28)고 말씀하셨습 니까?

여러분, 죄를, 악을 이겨야 합니다. 부정 의 생각도, 허망한 생각도 버려야 삼니 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인생이 명작이 될 수 없습니다. 간혹 죄를 몰마시듯 하 는데 잘 살고 잘 나가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그는 지금 미끄러져 가고 있는 겁 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고, 죄의 결 과는 분명히 사망입니다(롬6:23). 예수 님이 일흔 번에 일곱 번도 용서하신다 는 그 말씀만 잡고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찢겨놔도 다시 우리에게 놓 는 것처럼, 죄를 마구 짓는 사람이 있습

니다. 회개하면 죄 사함은 받겠지요. 그 러나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뿌린 씨는 거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 다는 다윗마저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고 (삼하12:10~11),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 성들을 이끌어내느라 죽을 고생을 한 모세도 트리바에서 반석을 두 번 내리 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목으 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신 32:51~52). 저요? 제가 목회 초기에 교 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교회 를 깨뜨리셨고, 제 사지를 마비시켜 버렸 습니다. 더 이상 죄짓지 말라는 경

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저는 큰 자 가 되기 전 에 깨끗 한 자 가

되 리 라 마음먹 고 지금까 지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러셨던 것처럼 괴 뿌리기까지 죄와 싸우십시오. 성경은 얼마나 죄와 싸 워야 하는지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 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찢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 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마5:29~30)고 말씀하셨습 니다. 내 인생에 암적 요소가 있거든, 내 인생을 녹슬게 하는 것이 있거든 가차 없 이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죄악은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나무는 뿌리까지 뽑아야 자라지 않고, 흐르는 물은 물길의 원천을 찾아 메워야 다시는 흐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잔디에 있는 잡초를 뿌리째 뽑아야지, 아니면 질 긴 생명력으로 다시 잡초가 무성해진다 는 말입니다. 민수가 31장에 보면 이스 라엘이 미디안을 철저히 멸절시키지 못 함으로써 훗날 다시 세력을 규합한 미디

안 족속에 의해 엄청난 시련을 당하지 않 습니까(삿6~8장)? 이스라엘 역사만 그 런 게 아닙니다. 당신 인생의 죄악을 송 두리째 뽑아내지 않으면 당신 삶도 이렇 게 됩니다. 껌짝 안에 사과 하나가 썩으 면 전체 사과가 썩지 않습니까?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 사후약방문 되지 말라

그럼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길까요? 어떻 게 내 생각을 좋고 선한 것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무디는 컵을 들고 교 인들에게 어떻게 컵 속의 공기를 조금도 남기지 않고 뱉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공기 펌프로 빼면 됩니다.” 라고 말하자, 무디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컵이 깨집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무디는 미소 를 지으며 주전자를 들고 컵에 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보 세요. 컵에 물을 가득 채우면 공기는 조 금도 남아 있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무 디는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죄를 빼내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우리는 노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컵에 물을 가득 따르면 공기가 빠져나가듯이, 우리 삶 속에 죄를 빼내려면 우리 영혼에 성령 을 가득 채우면 됩니다. 오로지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짐으로 죄를 제거하고 승리 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 를 이길 수 있고, 죄에 빠지지 않게 됩니 다. 성령이 소멸하여 내 영이 비게 되면, 악한 영이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8:2). 그러면 내 인생이 명작이 되어 남에게도 추앙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 하게 내밀 수 있는 멋진 작품이 되는 것 입니다. 할렐루야!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소경이여, 눈뜬 자를 따라라

소경이 소경을 따라가거나, 혹 눈뜬 자가 소경을 따라간다면 이들은 필경 구덩이에 빠지고 말 것이다. 소경에게 제일 좋은 방법은 소경이 눈뜬 자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면 둘 다 산다. 어떤 분야에 잘 모르는 사람은 그 분야를 잘 아는 사람,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을 따라가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분야에 자신과 비슷하거나 자신보다도 못한 자를 멘토로 두고 따라간다면 함께 구덩이에 빠지기로 이미 결정된 것이다. 소경이 소경을 따라 갔기 때문이다.

스바 여왕이 왜 그렇게 많은 선물을 싣고 솔로몬을 찾아왔을까? 왜 흑자는 워렌 버핏과 2~3시간 식사하는데 수십억을 기꺼이 지불했을까? 왜 비싼 돈 지불하며 자녀들에게 명문대 출신의 가정교사를 붙여주려 할까? 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를 몰래 찾아왔을까? 이들은 지혜가 있어서 상대가 그 분야에 눈뜬 자임을 알고, 살기 위해 선택한 것이다. 지금 당신이 따라가는 멘토는 어떤 분인가? 혹시 소경 아닌가, 아니면 그 분야에 눈을 뜬 분인가? 점검해야 한다. 더 멀리가기 전에.

요기서 8장 7절에, 시작은 미약하나 심히 창대해지기를 원하면 ‘선전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배우라’ 하셨다. 즉, ‘앞선 자들이 경험하고 성공해서 눈을 뜬 것을 모방하라’는 것이다. 어떤 분야에 눈을 뜬 자를 따라가면 너도 눈을 뜨게 되고, 훗날에 소경을 인도해줄 수 있는 인도자가 될 수 있게 된다. 사업에 성공하길 원한다면, 사업

에 성공해서 사업성공의 눈을 뜬 사람을 따라가야 산다. 목회에 성공하길 원하면, 목회에 성공해서 목회 성공의 눈을 뜬 사람을 따라가야 산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하고 학식 있는 목사였지만, 성령에 대해 몰랐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불러서 가르쳤다. 영적 소경인 목사가 영의 눈을 뜬 성도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이다. 바로 그거다. 그래야 산다(행18:24~26).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소식이 없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을 가져오라 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며 그 앞에 제사 지내게 하고 뛰어놀게 하다가 3,000명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함께 구덩이에 빠진 것이다(출32:1~6).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12명의 두령 중에 영적 소경인 10지와 두령들의 말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 영적으로 눈을 뜬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갔으면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것이다(민13~14).

내가 모르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는 자를 찾아야 한다. 그 분야에 성공하여 눈을 뜬 자를 찾아야지, 쉽게 아무나 붙잡고 따라갔다가 함께 구덩이에 빠지지 말자. 소경은 어찌됐든 눈뜬 자를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사는 길이다. 최고 상책이다. 영·혼·육 세상 모든 분야의 눈을 뜨신 예수를 따라가는 자는 최고로 지혜로운 자다.

이시대 목사

기도 응답의 맛을 보라

‘밤새 울고 나서 누가 죽었냐고 묻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설교 때 종종 언급하시는 문구인데, 무언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어서 기도를 하면서도, 정작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그게 응답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대학부 학생들은 약 2주간 국가적인 위기와 더불어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중보기도 제목을 공유했는데, 가장 먼저 내걸은 기도제목은 ‘나라와 민족의 평안’이었습니다.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지난 주일에배 총회장 목사님께서 “우리가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더니 100만 명이 운집했던 촛불집회가 아무런 사고 없이 평화적으로 무사히 끝났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때 문득 떠오른 것은 새벽에 저와 대학부원들이 함께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새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상상조차 못할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하신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

리가 기도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겐 국내외 언론에서 이야기하듯 ‘성숙한 시민 의식의 결과물’ 정도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정말 기도의 응답은 준 자와 받은 자만 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느껴지는 뿌듯함을 어찌 글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11:24). 물론 하나님의 응답은 ‘Yes’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Wait(기다려)’일 때도 있고, ‘No’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시기에 ‘그리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본 자가 기도의 맛을 압니다. 기도의 맛을 보았으니 지속적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평화통일을 위해, 또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지금으로부터 제 인생의 약 16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한일****’이라는 회사 재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회사를 다니며 저 나름대로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회사 내부의 공금횡령 사건으로 영업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서가 50일 이상을 파업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황금 같은 시간이고, 기회였기에 매일 5시간의 기도와 30여권의 선교서적을 읽으며, ‘선교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정의해보고 나름대로 메모를 했습니다. 특히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방식에 대해 많이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날 한 꿈을 꾸었고, 그 꿈속에서 너무나 분명한 주의 음성을 들었기에 16년이 지난 지금

에도 생생합니다. “윤석아, 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너는 먼저 은혜를 구해라. 내 일의 시작과 마침은 첫째도 은혜요, 둘째도 은혜요, 셋째도 은혜다.”

다시 말하자면 선교의 방법을 찾고 연구하기 전에 선교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의지나 내 신념으로 가다보면 어느 순간 불평하게 되고, 어느 순간 좌절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년간의 중국선교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진리입니다.

무슨 일을 도모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사람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과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윤석 목사**



된장에서 배우는 5가지 지혜

매주콩으로 만든 구수한 된장에 싱싱한 애호박, 새하얀 두부를 넣고 보글보글 한소끔 끓인 된장찌개,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돈다. 이런 된장찌개 하나면 밥 한 공기 푹딱하는 한국인이 많을 것이다. 된장은 한민족인 우리에게 예로부터 전해온 조미료로 음식의 간을 맞추고 맛을 내는 기본 식품이다. 이런 된장에서 우리는 선조들의 지혜와 함께 크리스천의 덕목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첫째, 단심(丹心) - 된장은 다른 음식과 섞여도 결코 맛을 잃지 않는다. 된장과 고추장이 섞인 찜장, 고추장찌개에서도 된장은 고유의 맛을 지니고 있다.

둘째, 항심(恒心) - 된장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다. 오히려 더욱 깊은 맛을 낸다. 된장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고유의 구수함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 무심(無心) - 된장은 각종 병과 몸속의 좋지 않은 기름기를 없애준다. 암에 걸린 쥐에게 한 그룹은 된장을 먹고, 한 그룹은 된장을 먹이지 않았다. 그러자 된장을 먹은 그룹의 쥐들의 암 조직이 80%나 감소했다고 한다. 또, 전통기법으로 발효시킨 된장은 손상된 간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혈중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어 혈관을 탄력적으로 만들어준다.

넷째, 선심(善心) - 된장은 매운 맛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맵고 독한 음식도 된장이 들어가면 맛이 좀 더 부드러워진다.

다섯째, 화심(和心) - 된장은 어떤 음식과도 조화를 이룰 줄 안다. 된장은 찌개, 장, 생선, 채소 등 모든 음식과도 잘 어울린다.

무심결에 먹은 된장에서 이렇게 많은 의미가 있다니 새삼 놀랐다. 어쩌면 된장은 어느 사람보다 더 많은 덕을 지니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자신의 깊은 맛을 잃지 않으며,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고, 사람의 몸을 이롭게 하며, 다른 음식들을 포용하고 부드럽게 해주기까지 하는 된장. 이런 된장처럼 우리 예수중심교인들은 크리스천이라는 본질은 놓치지 않으며, 어떠한 시련에도 변치 않고, 세상을 이롭게 하며, 안 믿는 자들을 이해하고 포용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 성경에서 배운다 ::

:: 참된 깨달음 ::

추수 없는 감사

추수감사절은 흔히 신앙의 꺾박에 못이긴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하여 농사를 지은 뒤 첫 수확을 기념하여 지내는 절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는 꺾박 없는 새롭고 넓은 땅에서 풍성한 작물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감사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긴 항해를 마치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 함께 길을 떠난 가족과 동료들은 반 이상이 굶거나 병들어 죽었습니다. 게다가 낯선 땅에서의 농사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아 거두어드린 작물은 형편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몇 번이고 금식기도를 거듭한 끝에 없는 것에 절망하는 것이 아닌 주신 것에 감사하기로 결심하고 추수감사절을 지낸 것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살전5:18). 추수한 것이 많아서 하는 감사는 너무나 당연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이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추수한 것이 없고 때로는 절망가운데 놓여도 모든 일과 모든 상황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묵직한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뢰와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그랬습니다. 그는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멸망시키는 하나님 섭리가 이해되지 않았습니

다. 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고백과 함께 자신은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즐겁다'며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최고의 신앙을 보여줍니다(합3:16~18). 우리는 하박국과 같은 태도를 견지(堅持)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혹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는 순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기에 믿음으로 문제 위에 우뚝 서서 감사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스펔전 묵사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추수 없는 감사야말로 풍성한 추수의 감사를 불러오는 가장 확실한 밑거름이라는 사실을! **하인명**
renming@daum.net

Good News

어느 날 아주 유명한 재판관이 한 죄수를 재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인은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난 후 경제사범으로 고소를 당하여 구속 상태에 있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던 판사가 피고의 인적사항과 얼굴을 보니 어린 시절 아주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판사는 잠시 고민에 빠졌지만 이내 평정을 찾고 침착하게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당신은 사기죄가 인정되므로 추징금 10억 원, 벌금 5천만

원에 처합니다." 화들짝 놀라 눈물을 흘리며 피고가 사정을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부도가 나서 돈이 한 톨도 없습니다. 제 형편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재판 진행 절차에 따라 최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난 뒤 법복을 벗고 내려와 자신의 재산을 다 팔더니 친구의 추징금과 벌금을 대신 납부하였고, 친구는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선고를 내렸지만, 당신

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자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속량하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구원의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셔서 참 평안을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상화평 목사님
sanghwapyung@hanmail.net

:: 평신도 묵상노트 ::

온전한 백성으로 품격을 갖추기까지

최근에 노숙자들을 위해 사역하시는 사모님께 들은 이야기다. 십 여 년 노숙을 하면서 좀도독질을 하던 청년이 있었다. 이 청년은 교회 몇 번 오더니 바로 말쑥에 은혜를 받아 거듭났다. 그러나 회심 이후에도 수 십 번 성도들의 헌금과 교회의 물건을 도둑질하였다고 한다. 가난한 개척교회인지라 가져갈 돈도 별로 없었는데, 주로 그 청년은 성도들이 성경책 사이에 꽂아둔 헌금과 교회사택에 있는 사모님 지갑의 돈을 훔쳤다고 한다. 도둑질하다 걸려서 회개하고, 또 도둑질하고, 그리고 회개하기를 반복했는데, 그런 그의 도둑질하는 버릇을 고치는데 약 6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또 그 청년이 십 여 년의 게으른 생활을 청산하고 노동을 규칙적으로 하며 월급을 받고 저축할 수 있게 되는데도 수년의 세월이 필요했다고 한다. 정말 이해가 가고도 남는 이야기다. 나 역시 요즘 악습과 전쟁 중이다. 평소 미루는 것과 게으른 것, 대충 대강하는 그 악습을 고치고자 부단히 노력하건만, 정

말 진보는 눈곱 만큼이다. 하루는 좀 나아진 듯하나 다음날에는 여전히 게으르게 미루고 있는 나를 본다. 죄와 악습이 단번에 고쳐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위의 청년이나 나처럼 수년을 고생하는 게 대다수다. 한 친구는 동성연애자였는데, 공동체에서 공개적으로 동성연애자들이 다니는 클럽에 다녀온 것을 회개하고, 또 몇 주 뒤에 그 곳에 다녀온 것을 울고불고 회개하고, 또 다녀오고 회개하였다. 그러길 수 년, 놀랄게도 그 공동체에서 그가 회개할 때 담담히 듣고 있던 자매와 결혼하여 지금은 잘 살고 있다. 부르심을 입고, 말씀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고, 결단했지만, 우리 안의 죄와 악습이 완전히 떠나가기 전까지 우리는 수없이 마음으로 제사의식을 치른다. 내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희생을 눈물로 상고하고, 시간과 돈을 들여 집회에 참석하고, 극심한 고통과 슬픔 가운데 기도를 드리는 일을 매번 반복한다. 참으로 깨달음은 단번일 수 있으나 온전한 순종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전쟁

을 치르고 있는 우리들은 같은 연약함으로 고통 받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다. 거듭났으나 좀도독질을 멈추기까지 6개월의 시간이 필요했던 형제, 노숙자의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건전한 노동자로 세워지기까지 수년이 걸렸던 형제, 동성연애자에서 이성과 결혼해서 건강한 가정을 꾸려나가기까지 십 년이 걸렸던 형제, 아직도 성공신화를 온전히 쓰지 못하지만 죄의 횡수는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형제들... 그들이 눈물로 치르는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분명 받으셨을 것이다. 단번에 고쳐지지 않는다하여 너무 낙심하지 말고, 다시 예배와 기도, 말씀에 집중하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말씀은 받았으나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씨를 뿌렸으나 열매를 거두기까지 많은 시간과 수고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이며 원리이지 않는가! **박소향**
bp650624@naver.com

금이 간 물 항아리

한 아낙이 물지게를 지고 먼 길을 오가며 물을 날랐다. 양쪽 어깨에 항아리가 하나씩 걸쳐져 있었는데 왼쪽 항아리는 살짝 실금이 간 항아리였다. 그래서 물을 가득 채워 출발했지만, 집에 오면 왼쪽 항아리의 물은 항상 반쯤 비어 있었다. 왼쪽 항아리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그러던 어느 날 아낙에게 말했다. "주인님, 저 때문에 물을 더 길러 다녀야 해서 죄송해요. 금이 간 저를 버리고 새것으로 쓰시지요." 아낙이 빙그레 웃으면서 금이 간 항아리에게 말했다. "나도 네가 금이 간 항아리라는 것을 알고 있단다. 그렇지만 괜찮아. 우리가 지나온 길의 양쪽을 보거라. 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오른쪽 길은 아무 생명도 자라지 못하는 황무지가 되었지만, 네가 물을 뿌려준 왼쪽 길에는 아름다운 꽃과 풀과 생명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잖아. 너는 금이 갇지만, 너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자라나고, 나는 그 생명을 보면서 행복하단다. 너는 지금 그대로 네 역할을 아주 잘 하고 있는 것이란다." 무언가 우리에게 전달하기에 충분한 인터넷 상의 글이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룻2:15~16). 보아스가 룻을 위해 일부러 곡식알을 흘리게 한 사건이다. 그것으로 나오미와 룻이 생계를 유지했다. 나눔, 이것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며,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나누기 위해서 꼭 부자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금이 간 항아리라도 마음만 있으면 나눌 수 있다. 나눔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이다.



헤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시편 136편 중에서)